

[신약 속 미로 찾기 24] 왜 하필 ‘뱀(snakes)같이’ 일까?

한상원 목사 / 2001 / 페이지 수: 2

‘사단’처럼 지혜로우란 말?

예수님은 때가 되어 복음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보내시면서 전도자로서의 원칙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예언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의 심정이 들어 있는 말씀이다. 온순한 전도자를 마치 이리가 양을 찢을 것 같은 포악한 세상으로 내보냄과 같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뱀”(snake)하면 언뜻 사단을 떠올린다. 그렇다. 뱀은 사단을 지칭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9). 뿐만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꾀는 존재가 뱀이 아니었던가? 뱀은 세상에서 제일 간교한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창 3:1).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사단처럼 지혜로우란 말씀인가? 아니다. 사단의 교활한 지혜를 말씀한 것이 아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선 격언처럼 쓰이던 말이 있었다: “하나님이(유대인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나 이교도를 대해서는 뱀 같이 지혜롭다.”

뱀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구약에서도 익숙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동물을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뱀의 악한 인상을 제거시킨다. 즉 “선하게 지혜로워라”는 말씀이다.

선한 열매 가득한 ‘순결한 지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지혜로 속임을 베푸는 뱀을 이겨내야 함을 가르치셨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다. 간교하다는 것은 속이는 지혜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다. 그 속임수는 처음에는 달콤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패망이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고 지금도 그 유혹에 빠진다.

그리스도인의 뱀 같은 지혜를 결코 이런 모양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악한 뱀을 이겨야 한다.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한 표적은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것을 다시 취했을 때 지팡이가 된 사건이다. 비록 바로 앞에서 행한 표적을 이집트 마술

사들도 행했지만 마침내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 버렸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뱀 같은 악한 지혜를 능가해야 한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목하라.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약 4:17).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약1:5). 하늘의 지혜는 “뱀같이 교활한 지혜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 순결한 지혜”이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